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전 한림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윤혜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원이 된지 어언 30년이 가까운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경 경제 발전과 아파트 주거환경의 급증 그리고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환자가 많아지고 특히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 환자가 많아져서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학회지를 얻어 볼 의향으로 알레르기 학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학회지를 구독하고 싶다고 했더니 사무실 직원이 학회장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하신다고 바꾸어 줬습니다. 저는 당시 학회장님 누구이신지, 존함조차 몰랐습니다.

학회장님이셨던 강석영 교수님께서 학회 등록하라고 하시면서 학회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학회사무실은 지금 서울대학병원 본관 강석영 교수님의 교수실이었습니다.

그림 1. 진료실에서

강석영 교수님은 소아과 몇몇 교수님들에게 알레르기학을 같이 공부하자고 권유했으나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사양하시고, 다른 한 분은 본인은 참석 안하시고 레지던트를 한번 보내시고는 소식이 없다고 저보고 알레르기에 흥미가 있으면 일주일에 2-3회 서울대학교 알레르기 클리닉에 와서 배우라고 하시면서 알레르기 학회지 창간호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끊어주시면서 공부하기를 권하셨습니다.

그 후 일주일에 2회 알레르기 클리닉 외래 진료실에서 skin test 도 직접 하며 견학하였는데 약 한달 쯤 되자 학회 사무실 직원이 알레르기학을 공부하는 것을 환영하는 뜻으로 강석영 교수님께서 저에게 오찬을 대접 해주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상으로 배울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오찬을 사주신다니 몸들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대원각"(현 길상사)이라고 삼청동에 있는 운치 있는 음식점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불고기 냉면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마쯤 다니니까 강석영 교수님께서 서울대병원 지하실 총무과에 가면 알레르기 수료증을 줄 거라고 하시어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레르기학 발전을 위해 강석영 교수님은 저를 이끌어 주셨고, 교수님의 열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 후 1984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일본 알레르기 학회에 저로서는 처음 해외 알레르기학회 참석이었는데 학회장에서 1960년대 초 처음 가와사끼 질환을 알레르기학회에 발표하신 가와사끼 선생님을 소개 받을 수 있게 해 주셨고, 가와사끼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일본 적십자병원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맹활약하시던 고 이꾸라 선생님의 알레르기 센터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2. 한일학회에서 강석영 교수님 등 참석자들과 함께

1985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국제 알레르기 면역학회 우리나라가 처음 정식등록으로 당시 학회 참석자들이 모두 고무되었었고, 그 학회에서 마련한 National symphony orchestra 공연에서 당시 거장 폰 카라얀이 총애한다는 first violinist의 연주와 미모에 열광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 몇 명 안 되는 회원이 모여 지회 집담회도 열성적으로 참여들 했고, 또 “알레르기 임상의 실체” 책을 집필을 위해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여러 과 교수님들이 삼청동 엔지니어링 클럽 회의실에 모이곤 했던 일 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5년인가 봄에 전주관광호텔에서 대한 알레르기 학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소아천식”을 발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흥분했던 일, 그 발표를 위해 금강제화에서 새 구두를 사신고 어설픈 발표를 한 후 전주지회에서 마련한 마이산 산행을 하게 되어 새 구두가 다 망가졌든 일 등 잊지 못할 추억들이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이 알레르기학을 하지 않았으면 어찌 고명하신 내과 교수님들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피부과 교수님들의 훌륭하신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며, 가까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학회는 여러 과가 모여 연주하는 알레르기라는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입니다.

얼마 전 무주 천식 알레르기 학회에 참석하여, 많은 회원들의 참석과 수준 높은 학문적 성장으로 이제 학회는 참으로 멋지게 성장해서 훌륭한 발표를 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장으로 발전했음을 보며, 학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고 강석영교수님을 위시해서 앞서 가신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과, 그분들도 흐뭇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알레르기학회 회원으로 살아온 세월이 참 저에게는 행운이었으며 여러 회원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인생에 아름다운 시간은 순식간이듯 지나가 버리고 그 뒤에 긴 그림자 같은 추억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